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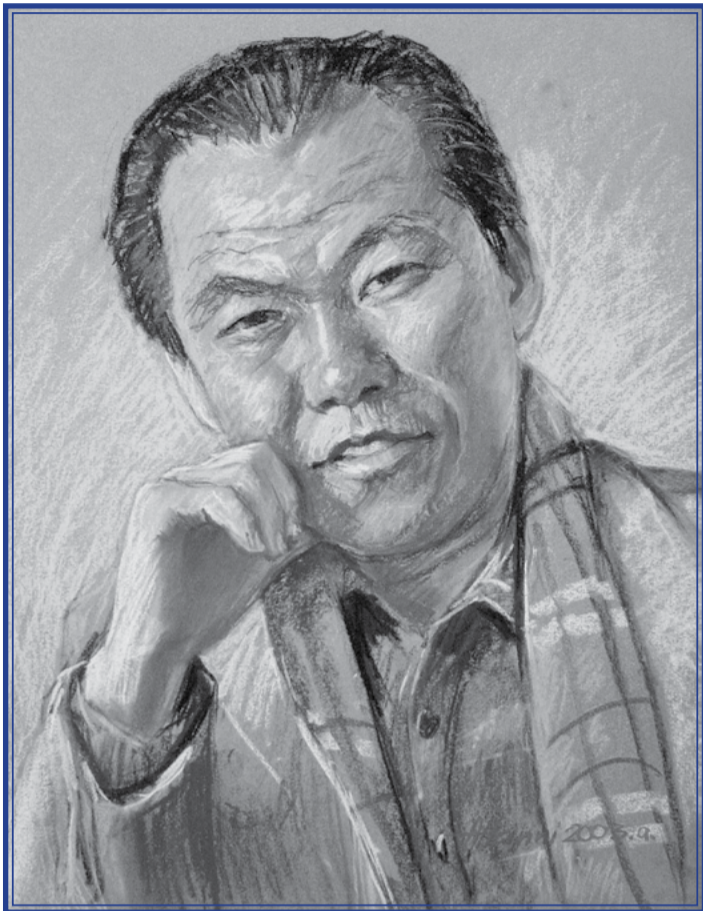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2월 21일 (제77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목회 30년에 즈음하여

락한 천사라고 발표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담대하게 모든 것은 타협의 대상이지만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지금도 그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후의 바람은 더욱 거셌다. 기독교 언론에서는 연일 이단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광고하고 광고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그 일과 무관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30년을 돌아본다. 철산리에서 인천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송의동 성전으로 이전, 개척 3년 만에 3,000명 성도로 급성장했던 일, 그 후 기도원을 인수하고 교만을 떨며 안수하다 사람의 혼이 떠나 단에서 하염없이 통곡하며 회개하여 그 사람을 살린 일, 교만하다 사지가 마비되었던 일,

오키나와 모살사건, 과테말라 모기에게 물려 몸은 붓고 부스럼 굼어대며 웃고 울던 세월... 그 중 가장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일은 믿었던 제자들이 떠날 때였다. 그때의 내 맘을 뭐라 표현할까!

어디 사건만 아롱다롱 일까. 사람도 아롱다롱이었다. 너구리같은 자, 늑대 같은 자, 여우같은 자, 돼지 같은 자, 구렁이 같은 자... 그러나 주님은 늘 피할 길과 지혜로 인도하셨고, 위로하셨으며 감싸주셨다.

세월은 내게 지혜를 주었다. 날아오는 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성을 쌓는 것이었다. 수없이 날아오는 돌로 나는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의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성도들과 지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교단이 되었다.

남들은 한 달에 한 번 해외 나가는 것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세계로 반경을 넓힐 때의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던 일이 몇 번이었던지 모른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 "내 널 믿노라, 사랑하노라.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 정면 돌파하라. 일어나라 내가 널 도우리라"는 성령의 도우심 없었다면 나의 오늘은 없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봉우라는 비행기는 폭풍우 속에 난항을 계속했고, 봉우라는 자동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오대양 육대주를 돌아왔다. 지구를 100바퀴 넘게 돌았으니 자동차도 비행기도 좀 쉬어가잔다.

그러나 진정 고백하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명을 쓸 때나 언론의 못매를 맞을 때나 조사를 받고, 이단이라 정죄를 받을 때나 한결같이 나의 갑옷이 되어 주고, 우산이 되어 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훌륭한 제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과 직원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 이들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지어진다. 이들이 있어 내 삶이 값지고 멋진 것으로 추억된다. 이제 우리 감독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모든 분에게 상으로 보상해주실 걸 확신한다. 지금까지 함께 온 교단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한손은 예수, 한손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30년! 다시 함께 손잡고 가보자. 성령과 천사의 도움 속에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자. 그날에 우리 감독 예수께서 칭찬과 면류관 주시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는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며 기뻐하자.

대망의 2015년!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

어언 30년 세월을 브레이크 없는 봉우(朋友)라는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고 달렸다. 오직 사명(使命)이란 두 글자를 붙들고 바다를 넘고 산을 넘었다. 구비 구비 계곡, 낭떠러지였다. 조심스럽게 비행하며 운전했지만 몇 번 떨어져 죽을 뻔했고, 셀 수 없는 상처도 남겼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사히 잘도 왔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천사의 도움이었다.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의 길! 말 설고 낮도 설었다. 더욱이 추위와 더위, 외로움과 고달픈 목마름에 지쳐 쓰러질 때에는 살 소망마저 잃고 헤맸다.

개척 9개월 만에 만난 첫 시련은 두려웠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한명으로 시작하여 500명 성도로 성장하고 있을 때, 믿었던 자들이 단합하여 날 내쫓으려고 주일에 난리가 났다. 문을 막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했다. 누가 세운 교회인데... 나는 단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동안 기도한 후 그들을 향해 정면 돌파했다. 그러자 그들이 비켜서며 길을 터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그것은 나의 교만과 거짓의 대가였다. 이것을 통해 나는 큰 자가 되기 전에 겸손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이것은 내 평생의 교훈이 되었고, 그 후 교회는 아무 탈 없이 냇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에 다다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흘렀다.

지난 30년 세월, 전도자로서 내 삶은 평탄치 않았다. 애당초 평안을 버리고 각오한 바였지만, 눈물겹도록 힘겨운 삶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면서 불신자 사후의 영혼이 귀신이라 주장했다. 제사는 조상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도 외쳤다. 그러자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이어진 종교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그전에 교단 측에서 귀신의 존재가 불신자 사후영이 아니라 타

LA에서 눈이 터진 일, 워싱턴 총기난동사건, 파리에서 조기 귀국해서 조사받았던 일, 사람을 죽이고 피신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일, 인도 모슬렘의 죽인다는 헐박에도 10만 명이 모여 집회했던 일, 멕시코 캄페체 체포령 때문에 집회 허가를 받기 위해 위험천만한 경비행기로 8시간 비행했던 일, 인도양을 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중심교회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시, 기도원에서 세계목회자세미나를 했던 일,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맞고 쫓겨난 일, 처자식이 떠나고 어머니와 형제에게 버림받았던 일... 어찌 필설로 가능할까.

칼을 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강패를 제압하여 구원했던 일, 서울학생체육관 철야 때 때로 물려온 강패들과의 싸움, 기도원에서 나에게 누명 씌우고 언론에 보도한다고 협박하며 칼을 들고 난리친 사건, 복지교회 집회 때 린치 당해 선혈이 낭자해도 귀신을 쫓아 소경을 눈뜨게 한 일, 정신병자 치료하는 기적의 사건, 교회 없이 떠돌며 올림픽공원의 모든 체육관을 사용했던 일, 그나마도 없을 때는 공원의 한 귀퉁이에서 트럭에 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일, 개척 7년 만에 거대한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의 집회, 그리고 올해 추석 때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평화통일성회... 돌아보니 아련하기만 하다.

첫 해외 집회지인 일본에 갈 때 두벌 웃도 가져가지 말라는 음성엔 순종하여 성경만 들고 나갔던 일, 캐나다와 미국에 입국하면 죽인다는 헐박 사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고 입국금지 당한 일, 의사 면허 없이 병고친다는 광고를 낸 것이 발단이 되어 키르기스스탄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받고 추방된 일, KGB에 구속사건, 러시아 호텔 납치, 호텔테러사건, 에스토니아 자동차전복, 칠레 고속도로 사고, 멕시코 비행기 사고, 칠레 잠자리에 왜 이다지도 반대는 물어대던지... 아르헨티나, 가나에서 스텝의 비자 도난사건,



이초석 목사님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86년 2월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같은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금요철야예배에 가자고 하기에 우리 부부는 퇴근 후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 당시 성도는 300백여 명 됐을까? 그런데 이들 모두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모두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기서 첫 번째 놀랐고, 설교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머리는 장발에 흰 바지에 백구두 와이셔츠 차림으로 단상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 바짓가랑이까지 젖음) 믿음의 말씀을 원고 없이 전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강한 메시지에 두 번째 놀랐고, 설교 마치신 후에 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신을 쫓아 귀머거리, 소경, 병어리, 앓은 병이... 각색병을 고치는데 세 번째 놀랐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라 생각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다.

우리 부부는 그 다음 철야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아주 옮겨 등록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다. 삶 전체가 변화된 것이다. 제사도 안 지내니 가족들은 예수 때문에 미친놈(정신병자) 취급하며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저렇게 됐다고 인연까지 끊자고 핍박을 했다. 그래도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말씀이 듣고 싶어 주일이 빨리 오길 기다려지는 걸 어떻게 하라!

당시 나는 건설회사 (주)삼호에 현장소장

으로 있었다. 회사 퇴근 후 전단지 들고 전도하며 예수 자랑, 목사님 자랑에 입에서 침이 튀긴다. 믿지 않는 영혼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나는 강원도 원통에서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을 때도 주일날 믿지 않는 직원들을 싣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임명장을 주셨다. 아니나 다를까, 총회장님이 나에게 주의 종 길 가라고 하셨다. 나는 그 공사가 70% 진척되었는데 준공도 하지 못한 채 사표를 쓰고 신학 과정을 밟아 전도사가 되었다.

92년도 1월에 기도처에서 기도를 마치고 한 밤중에 집으로 가는데, 눈이 오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자동차를 급히 몰다 커브 길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미끄러져 전주를 받고 중상을 입었다. 자동차는 2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였는데 폐차되었고, 내 몸은 다리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엉덩이 꼬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로 나를 낮게 하신 것이다. 내 평생에 이 은혜 어찌 잊겠는가? 첫 번째는 나에게 성령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천국에 확신을 심어 주셨고, 둘째는 죽을 몸을 살려 주셨고, 셋째는 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하시어 직분을 주신 것. 넷째는 원주교회 담임, 인천교회 담임을 거쳐 서울교회 부목사로, 지금은 양주교회 담임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내 처에게도 전도사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은혜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값을 수 없는 은혜!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앞으로 30년 다시 시작해요!

양주예수중심교회 강반석 목사



할렐루야!
예수중심교단의 창립과 이초석 목사님의 목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예수중심교단을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초석 목사님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도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목사

우리는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님의 은혜만 입고 지낸 지난날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쏟아 주신 사랑, 관심과 조언들이 큰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며 목회를 해나가는데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지금까지 변함 없는 믿음과 충성을 보이신 목사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전무후무한 목회자,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 목사님이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 뒤를 따라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쫓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 쉬는 교회로,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지고 주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교회로, 모진 핍박과 환란에도 담대히 맞서 참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이끌어 오신 목사님의 목회 신념을 저 또한 함께 따르며 동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역하시겠다는 선포가, 결심이 이 땅을, 전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끄는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오신 목사님, 더욱 더 건강하세요.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오래 사셔야 교단과 저희들에게 유익입니다.

30년 동안 이 교단을 이끌어 오신 이초석 목사님의 눈물과 사랑과 기도와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모든 성도들은 교단 목회자들은 기억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제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중심교단으로,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사도 이초석 목사님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산예수중심교회 김초대 목사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교단의 창립 30주년과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던 33년, 때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생소한 교회당 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같이 열정을 내뿜는 목사님의 영권과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예수중심! 영원하여라

그렇게 두 손 들고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양육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목사님 없는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세계복음화에 매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쓰임 받고 있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아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 된 지난 세월, 지금도 마귀

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내며 성령세례를 베푸시는 목사님을 모신 것은 큰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금세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찍이 17세기는 네덜란드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18세기는 독일교회가, 19세기는 영국교회가, 20세기는 미국교회가 쓰임 받았습니다. 21세기는 한국교회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화 되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중심교단을 통하여 주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제2의 세례요한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과 복음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천사들에게 맡기셨지만 복음은 성령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단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까지, 그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수권교단으로서 영광 돌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30년 세월을 예수중심교단과 함께 해온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신기류 목사

예수중심교단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전도사 시절이다. 철도 없었고 욕심도 많았고 꿈도 많았다. 목사안수를 받고 강릉예수중심교회로 가라는 명을 받았다. 성경책 한권 들고 고속버스 편으로 가면서 보니 대관령 굽이굽이 산골 산골로 들어가고 있다.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유배를 가는 기분이었을까? 아무튼 도착해보니 교회는 썰렁했다. 전임교역자와 인사를 나누고는 밤에는 기도하며 강단에서 자겠다고 마음먹었고, 주일 첫 설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막상 기도를 하는데 아멘하고 강릉으로 온 것이 후회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사

기 기드온의 생각이 났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다고 한 말씀이 생각나 나도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저를 강릉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내일 주일에배 때, 새 신자 1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 강릉으로 보내신 것으로 알고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 신자를 안 보내주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설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조금 잔 것 같다. 그리고 주일 당일, 설교를 하는 중 밤에 기도한 것이 생각나 "오늘 처음오신 성도님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두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때 머리가 위로 솟는 전율을 느끼

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했다. 총회장 목사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사람이 보낸 것으로 오해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신자를 보내 주신 것을 말이다. 예배가 끝나고 들뜬 마음으로 새 신자를 영접하는데, 한 분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방학했다가 다른 한 사람 전도해서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에만 이슬이, 사면 땅은 마르게 해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란 것을 그 때 깨달은 것이다. 그 후 교회가 안정이 됐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또 캐나다로 가라는 것이다. 나는 영어를 못한다며 안가겠다고 했고, 목사님은 "기도해 보라. 너에게 든 네 아내에게든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얼마 후, 그 기도가 바뀌었다. 캐나다에 안가야 할 이유를 찾아보니, 영어를 못한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란 것을 깨달았다. 또 6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불순종하고 캐나다에 가지 않았다면, 딸 셋을 어떻게 유학을 보낼 수 있었으며, 세 자녀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목사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다.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인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목사님의 성역 30년 세월에 비하면 짧은 목회지만, 이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한다. 앞으로도 목사님을 닮아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의 성역 30주년, 교단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배방예수중심교회 임택함 목사

::교단소식::

새로운 각오로 다시 30년을 뛰자!

지난 15일, 전국의 목회자들이 김기동 목사님이 시무하는 성락교회를 방문했다. 이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시기 전, 총회장 목사님의 지시사항이었다. 목사님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경위는 다음과 같다. 엘살바도르 집회 중 목사님은 김기동 목사님을 한 번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그런데 귀국해보니 생각지 않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의 성역 30년을 축하하는 김기동 목사님의 메시지였다. (4면참조)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서 바로 김기동 목사님과 통화했고, 거의 5년 만에 김기동 목사님을 뵈었다. 목사님만 반가웠던 것은 아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 서로를 비유할 정도로 김기동 목사님 역시 총회장 목사님과의 만남을 기뻐했고, 무려 5시간에 걸쳐 그동안의 회포를 푸셨다. 또한 목회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다. 이것은 다시 30년을 계획하신 총회장 목사님께 큰 힘이 되었고, 김기동

목사님과 함께 돌아본 성락교회의 모습은 총회장 목사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했다. 총회장 목사님이 전국 목회자들을 성락교회에 보내신 취지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락교회를 보고 깨달았으면 한다. 김기동 목사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시다. 그 분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9:30)'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룬 분이다. 그 증표가 지금의 성락교회이다. 나는 여러분이 나처럼 김기동 목사님이 일군 성락교회를 보고 더욱 주를 위해 살 것을 각오했으면 한다." 이날 성락교회 이춘만 장로의 안내로 크리스천 세계선교센터와 맞은편의 시무원 성락역사전시관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머슴을 살아야 할 만큼 가난한 소년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일평생을 산 결과가 거기 거룩한 기쁨, 곧 성락(聖樂)에 있었다.

많은 장소와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은 것은 "나를 만나려거든 성락교회를 보고, 내가 쓴 책을 읽으라."는 말씀이었다.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당당한 일성(一聲)이기 때문이다. 예수중심교단과 교회는 이제 30년 역사를 썼다. 다시 30년을 시작하는 이즈음에 성락교회는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줬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각오를 갖게 했다. 우리는 서울 본성전이 없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있고, 이를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처럼 감사한 적이 없다. 오늘 받은 도전의식과 다진 각오로 더 큰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세계 70여 개국에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후회 없이 달렸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사는 교단과 교회가 될 것을 목회자들은 다짐했다. "부자는 되고 불일입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도 어서 부자 되어서 멋있는 일을 합시다." - 이시대 목사

"이곳에 와서 예수중심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주실 것입니다." - 상화평 목사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백배로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 장영국 목사
"총회장 목사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각오가 새롭습니다." - 차명선 목사
"우리 예수중심교단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뭐든 이룰 수 있습니다." - 일오삼 목사
"감동받았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 김진 목사
그렇다. 이 축복은 김기동 목사님의 것만이 아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자의 것이다. 다시 3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2015년! 보고 깨달은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위해 살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크리스천 세계선교센터와 시무원 성락역사전시관



성락교회 대성전에 모인 목회자들



총회장 목사님의 선물을 전달했다

사랑하는 이초석 목사 성역 30주년을 축하하며



이초석 목사는 이 시대의 사도이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계명을 받은 종이다

예수중심교회 창립 30주년과 진실로 사랑하는 이초석 목사의 성역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는 진실로 이초석 목사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드린다. 이 시대에 나와 같이 예수에 미쳐 버린 사람이 또 있다는데 감개무량하고, 지난 30년간 지켜본 결과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분명한 해답이었다. 이렇게 고마운 참 동지가 성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격하고 축하한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자들과 싸우는 모든 시간들이다. 이김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되어 버린 현대 교회 같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이 지시하시면 지시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사역하는 자가 참 종이다.

이초석 목사는 이 시대의 사도이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계명을 받은 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대로 죽을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목숨을 내놓고 역사하는 진정한 일꾼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그 열매로 능히 알 수 있다.

어떤 간에 성역 30주년을 맞이했고, 그 열매로서 예수중심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사역만을 고집해 온 이초석 목사에게 축하와 함께 축복을 하는 바이다.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만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맡겼던 그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이초석 목사와 예수중심교회에 들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초석 목사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 시대에 또 있을까? 나는 평생에 많은 종들을 만났다. 그러나 간사함이 없는 참 일꾼은 오직 이초석 목사 한 분이였다. 세계 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신령한 종이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돕는

다고 하셨다.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뜻한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있느니라’ 하심같이 이초석 목사는 참으로 항아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여기고 순교의 길을 걷는 이 시대의 사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다.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흥해도 가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중심교회와 더불어 모든 핍박과 훼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라.

나는 이 시대에 이런 동지가 있다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부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만 욕심이 있는 큰 종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기를 축원한다. 진실로 축원한다.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감독

나의 멘토, 이초석 목사님!



철산 예루살렘교회가 개척된 이듬해에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광명시 인복 유치원 지하에 있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단에서 설교하시는 형님(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생소하기도 하고, 세상에 참 별일도 다 많다고 생각했다. 형님이 목사가 되다니?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주일예배 후에 난리가 난 듯이 젊은이들이 앞뒤로 뛰고, 교회에 끼이고, 생전 말로만 들던 일을 직접 보았다. 그 일로 나와 가족은 교회를 멀리했고 다시 1년 후에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익숙지 않은 도시 인천 산속에 있는 교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광명시에 있을 때보다 제법 성도들도 늘어나 있고 더더욱 충만해진 모습에 적이 놀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의동으로 교회를 옮기셨다고 다시 전화가 와서 그곳에 끌려다니다가 기도원 첫째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때 이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었고, 몇 년 후 서울 교회를 창립하고, 그 부흥의 바람은 전국을 휩쓸더니 지

나가는 자리마다 교회가 서게 되어 오늘날 100개가 넘는 지교회의 씨앗이 뿌려졌다. 2000년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해외집회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14년간 전 세계를 100회 이상 도시에 복음을 외치고 계신다.

35세의 젊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목회자가 여든 30년이 흘러 65세가 되셨다.

오직 주님 한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달려오신 목사님, 그저 옆에서 모시고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집회 영상에서 자주 보듯이 입을 딱 벌린 채 다물 줄 모르고 놀란 눈으로 예배 내내 경청하는 모습, 사실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신 우리 목사님. 목사님은 나의 멘토 이시다. 영혼의 멘토, 목회의 멘토, 인생의 멘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으시고 멋지신 영·혼·육의 멘토를 갖게 되어, 목숨을 다 바쳐 섬겨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기만 한 사도 바울을 둔 브리스길라와 아굴아의 기쁨과 행복 말이다.

나는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다. 더 무엇을 바라겠나, 더 바라면 욕심이라.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우리 목사님 노년에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행통하시고, 우리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더 큰 부흥, 더 넓은 세계로!



존경하는 이 초 석 목사님의 목 회 가 시작되고 예수중심 교 단 이 이 땅에 자리한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기적과도 같은 지난 30년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지난 30년 부흥을 기반으로 이초석 목사님과 예수중심교단이 새로운 부흥의 30년 역사가 시작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이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같은 시련과 시험이 예수중심교단을 더욱 굳건한 반석위에 세우게 하신 역사하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축복과 함께 말씀의 위력을 갖추신 이초석 목사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30년이라는 시간 위에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굳건한 반석위의 교회를 이루신 역사의 주인공 이초석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축하와 존경을 바쳐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걸어온 ‘지난 30년’의 시간만큼, ‘앞으로 30년’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섬김의 길을 걸어갈 이초석 목사

님께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바라만 보아도 행복해하고, 목사님과 스치기만 해도 평화로워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예수중심교회는 더욱 축복된 교회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평강과 축복의 에너지가 늘 차고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초석 목사님은 한국교계의 희망이요 마지막 남은 불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씨 삼아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본받아 열정, 뜨거움, 능력, 파워, 신세대적 사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초석 목사님을 모방을 할 수 없을지언정 이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남다른 열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오신 기적보다 살아가실 날들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한껏 누리시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초석 목사님과 예수중심교단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전병헌 안수집사